

내실있고 생동감 있는 협회



희망찬 정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전력기술인 여러분, 그리고 가족여러분!

1996년 병자년 한 해는 우리 전력기술인들 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 각층에서도 수많은 상황들이 뒤엉켜 크나큰 진통을 겪은 파란과 격동의 한해였습니다.

WTO체제와 OECD가입에 따른 많은 갈등과 모순들이 분출구처럼 터져 나오고 급속한 상황변화에 제대로 적응력을 발휘하지 못해 시련을 겪고 있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전력기술인들로서는 다행히도 정축년 새해부터 민법 제32조에 근거한 사단법인 대한전기기사협회를 마감하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법정단체인 「한국전력기술인협회」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난 해 11월 29일 정든 대한전기기사협회를 역사의 뒀안길에 묻어 놓고 한국전력기술인협회의 창립총회를 가졌습니다. 창립총회 개최 후 그동안 정부의 승인절차와 협조문제, 넓어진 업역에 대한 준비사항도 많았지만, 특히 재정경제원에서 추진한 기업활동규제완화 특별조치법 개정안의 의무고용제 완화문제가 제기되면서 뜻하지 않은 대 혼란과 진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국의 회원들과 많은 전력기술인들이 바라던대로 업무가 조속히 진척되지 못하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새 간판을 달고 갓 태어났지만 우리협회의 역사는 대한전기주임기술자협회를 시작으로 30년이 넘는 성숙한 장년입니다. 과거의 모든 전통과 맥락을 오늘의 여건에 맞게 승화시킬 수 있을 때 더욱 내실있고 생동감있는 협회로 자리를 잡아 갈 것입니다. 전력기술인을 위하여 새역사를 창조하는 것이 협회의 목표이며, 저 개인의 경영철학이기도 합니다.

.....
우리협회의 역사는
전기주임기술자협회를 시작으로
30년이 넘는
성숙한 장년입니다.
과거의 모든 전통과 맥락을
오늘의 여건에 맞게 승화시킬 수 있을 때
더욱 내실있고 생동감 있는
협회로 자리를 잡아갈 것입니다.

한국전력기술인협회의 새해 사업중점은
전력기술관리법시행의 정착과 전기사업법개정 등
여러가지 관계법령을
잘 정리해나가는 것입니다.
.....

특히 지난 12월 12일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에서 먼 지방에서 하루일과를 제쳐두고 뜻을 같이 해준 회원여러분께 뜻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사안은 이번 국회회기에서 저지되었지만 취소된 것이 아니라 보류된 것이니 만큼 또다시 거론될 것이 명약관화한만큼 배전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새로운 전기인의 역사를 창조하게 될 한국전력기술인협회의 새해 사업중점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의 정착과 전기사업법 개정 등 여러가지 관계법령을 잘 정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굳건한 뿌리가 있어야 건강한 큰 나무로 차라듯 협회가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회원여러분이 더욱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새해 댁내 두루 평안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 1월 1일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회장 권 용 득